지공·나옹 법연, 다시 한반도에 나투다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나옹 혜근(1320~1376)은 20세에 친구 죽음을 목격하고, 출가했다. 나옹은 운수납자로 여러 곳을 유행하다 25세에 양주 회암사로 들어가 4년간 장좌불와로 용맹정진했다. 나옹은 29세에 원나라로 건너가 연경 법원사에 머물고 있던 인도 승려 지공을 만났다. 지공이 먼저 물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고려에서 왔습니다."

"배편으로 왔느냐, 육로로 왔느냐, 신통으로 왔느냐?" "신통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신통을 내게 보여 주시오."

그러자 나옹이 지공 앞에서 두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지공이 다시 물었다.

"고려에서 왔으면 동해를 보고 왔는가?" "안보고 어찌 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너를 오게 했는가?" "제가 스스로 왔습니다."

"무얼 하러 왔는가?" "후인을 위해서입니다."

나옹은 지공 문하에서 2년을 머물렀다. 지공은 인도 마갈타국(磨竭提, Magadha) 왕자 출신으로 법맥 108대 조사이다. 지공은 우리나라 충숙왕 때에 고려를 다녀간 적도 있다. 이후 나옹은 평산 처림(1279~1361)에게서 법을 받았고, 몽산 덕이(1231~1308?) 등 여러 선지식을 만나 법거량하였다. 나옹은 고려로 입국하기 전, 다시 지공을 찾아가 '고려로 돌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한다.

나옹, 지공·평산에게서 法 전수 받아
조선代 영향, '나옹법통설' 나오기도
나옹, 지공 사리 귀환 환희로운 일

"너는 본국으로 돌아가 '삼산양수처(三山兩水處)'를 찾으면 불법이 흥하리라."

나옹은 10년 만에 고려에 귀국해 해주 신광사에 머물며 제자들을 지도한다. 이후 여러 곳을 순례하다가 회암사에 머물렀다. 51세에 공민왕은 나옹에게 5교양종의 납자들을 시험 감독토록 하였다. 이 무렵, 나옹은 공민왕으로부터 왕사 책봉을 받았다. 이후 1371~1373년 송광사(수선사)에 머물렀는데, 2년간 수선사 사주를 역임했다. 나옹은 지공이 말한 '삼산양수처'로 회암사를 생각하고, 재차 회암사로 돌아와 사찰을 중수했다. 이때, 조정대신들은 나옹에게 '경사 근처에 머물지 말라'며 밀양 영원사로 유배했다. 선사는 가는 길녘 신륵사에서 입적한다. 나옹은 선시에도 능했으며, 자력·타력적인 측면의 염불을 강조했고, 교학이나 수행 등 모든 면에 뛰어났다.

50세의 나옹이 회암사에 머물 때, 원나라 사신이 지공의 유골을 모시고 왔다. 나옹은 회암사 경내에 탑을 안치하고 지공의 유골을 봉안했다.

법통 문제를 보자. 나옹의 사상은 조선 중기까지 영향을 미치었다. 사명 대사와 친분이 깊은 허균이 휴정과 사명 입적 후인 1612년에 법통을 정리했다. 허균은 법안종·임제종·조동종의 선 계보를 이은 보조 지눌의 법맥으로 '나옹 법통설'을 주장했다. 이후 허균이 역적죄로 죽임을 당한 이후 휴정의 막내 제자인 편양 언기(1581~1644)가 재차 법통설을 주장했는데, 나옹이 아닌 '태고 법통'이다.

평소 필자는 나옹 혜근이 불교사 뒤안길에 가려진 것 같아 늘 안타까웠다. 그런데 4월 18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소장 중이던 부처님 진신사리 1과, 지공 사리 1과, 나옹 사리 2과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금이라도 나옹 혜근의 면모가 빛을 발함이요, 지공과 나옹의 법연이 한반도에 나퉜다. 환희로운 일이다.

불교와 민주주의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국회의원을 뽑는 제22대 총선이 광풍처럼 지나갔다. '광풍'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 삼독(三毒)의 회오리 속에서 치러진 선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도 국민의 한 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치열한 갈망을 보면 대한민국은 분명 민주주의 국가인 모양이다. 민주주의는 선거의 텃밭에서 이루어진다. 선거의 텃밭은 민주주의를 키우는 정원이다.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러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인성과 삶의 양식이다. 민주주의 성패의 핵심은 바로 '국민 참여(by the people)'이다. 시민이 지닌 정치문화의 수준에 따라 민주주의 운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불교와 민주주의는 매우 친화력이 높다. 불교의 승단조직과 운영은 어느 종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적 요소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바람직한 민주공동체를 정확히 나타내는 〈유행경〉의 내용을 보면 붓다의 정치관이 얼마나 민주주의적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붓다 재세시 강력한 대국인 마가다국이 민주주의 성격이 강한 밧지국에 대한 침략을 제지하는 내용으로 여기서 '칠불쇠법(七不衰法)'이 나온다. 이 칠불쇠법은 불교 공동체가 쇠락하지 않을 조건으로도 등장한다. 필자는 칠불쇠법의 핵심은 '자비 윤리'라고 본다. 자비 윤리는 바로 민주적 인성과 생활양식의 토대이다. 자비 윤리는 '상호윤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윤리는 열린 자세의 덕목에 바탕을 둔다. 자비의 윤리는 도덕적 진리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하지 않고, 또한 타인의 윤리적 행위에 대해 독단적 판단에 조심하고 연민심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러한 자세는 타인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이러한 상호윤리적인 자비 윤리는 갈등의 삶의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민주적 인성과 삶의 양식은 바로 중도적 삶과 연결된다. 자비 윤리는 갈등의 바다를 항해하는 나침판이라 할 수 있다.

불교와 민주주의, 친화력 매우 높아
자비 윤리 담긴 칠불쇠법이 대표적
연기 기반한 자비 윤리, 적용 필요

이렇게 자비 윤리는 민주주의 정원을 가꾸는 핵심 가치이다. 미국의 에릭 리우(Erick Liu)의 저서 〈민주주의 정원〉에서 오늘날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연기의 자비 정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기계형 사유와 정원형 사유를 비교하면서 연기적 사유를 정원형 사유로 표현하고 있다. 연기법과 여기서 생성된 자비 윤리로 민주주의 성숙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긴 역사 속에서 불교와 정치의 관계는 부정적인 요소도 많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국가와 불교의 관계 속에서 불교의 많은 치부가 숨겨져 있다. 오늘날 불교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무거운 주제다. 민주주의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 자비의 윤리로 어떻게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적당한 일조량과 물을 공급해야 할 것인가?

社 說

동국대發 대학생 전법불사 기대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조계종립 동국대의 노력이다.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는 현재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창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WISE캠퍼스에서는 학내 전법을 위한 전법단이 출범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지난 3월 20일 사회과학대학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이 창립된 데 이어 4월 15일 경찰사법대학 '캠폴스테이', 4월 18일 예술대학 '진선미'가 창립되며 총 3개의 단과대학 불교 동아리가 창립됐다.

동국대 WISE캠퍼스는 4월 16일 교내 정각원 법당 및 백주년기념관 앞 광장에서 'WISE대학생전법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WISE대학생전법단'은 건학이념의 구현과 대학생 전법 확대 및 불교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출범하게 됐으며 2024년까지 800여 명의 청년 대학생 불자 구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난 3월 13일 열린 건학위원회 기본기관장 연석회의에서 이사장 돈관 스님이 "동국대부터 불교학생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기다리지 말고, 지도교수와 교원들이 나서서 불교학생회 회원 유치에 나서달라"는 당부와 궤를 같이 한다. 생활불교와 대중불교를 강조했던 범산 김법린 선생은 '기다리는 불교는 이미 썩어있는 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학생과 청년세대가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가람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 사부대중의 화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불교문화포털' 오픈에 부쳐

한반도에 불교가 도래한지 1700년이 됐다.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불교는 한국인의 정신수행문화 근간을 이뤘고, 건축·미술·공예·기록 등의 전반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 양과 분야가 방대하다보니 이룩해 놓은 결과물들을 망라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과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선보인 플랫폼 '한국불교문화포털'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불교문화포털은 '한국불교 등재유산' '불교민속의례' '전통수행' '디지털 사지(寺誌)' '고승아카이브' '기록문화' '영역불서' '오디오경전' '불교용어' 등 9개 코너에, 총 27개 테마, 600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리정보기반 콘텐츠 제공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추진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접근방식은 여러 테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시도됐다. '고승아카이브'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몸소 겪으며 수행하고 대중을 제도한 고승들의 삶과 가르침을 생애, 수행, 포교, 사상으로 분류해 실었다.

무엇보다 '한국불교문화포털'은 한국불교의 정수들을 망라해 대중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콘텐츠화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시대에 맞는 언어와 방법으로 불교를 전하는 선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기록이 쌓이면 역사가 된다. 한국불교문화포털은 그간 축적됐던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망라고 새롭게 재생하는 허브가 될 것이다. 향후 이어질 행보도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4월 17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4월 17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4월 17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